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9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4. 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물기 없이 메마른 땅덩이처럼 우리 마음은 주님을 찾아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그리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고생과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는 주님, 수난의 땅인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주춧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롬3:23-24 ..... 인도자

♠ 교 독 문 ..... 20. 시편91편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황경순 집사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79. 피난처 있으니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막10:17-22 ..... 인도자

II. 막12:13-17 ..... 장재영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영혼의 허기(虛氣) ..... 김재흥 목사

II.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57.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익이나 편익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성심을 다해 받으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생의 곤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새 세상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10월 동호회 활동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5)/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박시내 집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태환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이영란 집사

<b>10월</b>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범희 이순정 최숙화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하현철 유영남 박혜경 박홍재

##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3

### 부정의 마귀와 욕의 욕망

(지난주에 이어서)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해야” 한다(시 101:8)는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지식에 비추어 죄악된 생각들을 구분하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들을 땅, 즉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자녀들—우리의 악한 생각들이—이 아직 어릴 때, 우리는 그들을 땅에 내던지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던져 제거해야 합니다(시137:9, 고전10:4 참조). 만일 우리가 동의하여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진다면, 크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위에 인용한 성경 구절 외에 교부들의 금언을 기억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카파도키아에 있는 가이사라의 감독 바실(St. Basil)은 “나는 여인을 알지 못하지만, 동정(童貞)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정의 은사는 여인과의 교제를 삼감으로써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거룩함과 순결함에 의해서 얻는다는 것, 그리고 영혼의 거룩함과 순결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획득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교부들은 먼저 진정한 마음의 겸손을 획득하지 않는 한 순결의 덕을 완전히 획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부정의 정념이 감추어져 있는 한, 우리에게는 참된 영적 지식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극기를 얻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보다 깊이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그 다음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극기에 대한 말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히12:16). 거룩함의 분량이 커질수록, 원수의 공격도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체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자주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통회를 획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벨론 왕이 날마다 욕망의 풀무로 불을 붙이는 욕의 용광로를 성령의 이슬로 끌 수 있을 것입니다(단3:19 참조). 게다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철야라는 위대한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낮에 생각을 지킴으로써 밤에 거룩함이 임하듯이, 밤에 철야하는 것은 낮에 영혼에게 순결함을

가져다줍니다.

## 탐욕에 대하여

우리의 세 번째 싸움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탐욕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그 마귀는 믿음이 부족한 수도사에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염과 욕망과 같은 정념은 몸에 의해 야기되는 듯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날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지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탐욕이라는 질병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키면 비교적 쉽게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한히 하면, 그것은 다른 정념들보다 더 파괴적이고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만 악의 뿌리”(딤후6:10)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생식기 안에서의 움직임은 아직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기에게서도 발생합니다. 갓난아기는 육욕적인 쾌락을 알지 못하지만, 육체 안에 그와 같은 본성적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아기들이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갓난아기에게도 화를 내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본성이 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창조주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내면에 심어 주셨다고 해도 성내는 능력과 욕망을 등한히 하면 몸 안에서 자연적인 것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변화되는 듯하다는 말입니다. 생식기 안에서의 움직임은 인류의 존속과 번식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내는 능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료 인간에게 사나운 짐승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악을 대적하여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심겨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정념들을 잘못 사용하더라도, 본성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창조주를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칼을 주었다면, 비록 그 사람이 그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칼을 준 사람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계속)

—중세 초기의 수도사인 존 카시안의 글입니다.

## ■ 마/음/으/로/워/는/글

# 언제나 가장 힘든 일을 택하십시오

- ▶ 가급적 자기를 작은 자라고 말하십시오.
- ▶ 일신상의 문제를 잘 돌보십시오.
- ▶ 호기심을 피하십시오.
- ▶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 ▶ 모순된 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 ▶ 남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 ▶ 부당한 비난도 받아들이십시오.
- ▶ 양보하여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십시오.
- ▶ 모욕과 핍박을 받아들이십시오.
- ▶ 버림받고 잊혀지고 경멸받았다는 느낌을 받아들이십시오.
- ▶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십시오.
- ▶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 ▶ 자기의 존엄성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 ▶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논쟁을 삼가하십시오.
- ▶ 언제나 가장 힘든 일을 택하십시오.

(마더 테레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양재성 윤석철 장혜숙 한상익 정영선 구명자 홍순구 안홍숙 박애순  
 백묘현 김용길 최영혜 이유선 방극숙 권채영 이인웅 김윤수 박옥경  
 이성운 김영순 무명1

###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이지훈 김명순 문금석 이소순 김종문 지명주 전영규  
 김경수 송의섭 배부례 이호원 송임희

###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정복순 최현욱 박병구 이성운  
 한지혜 김종구 박홍엽 이호원 김용길 최영혜 권미숙 하재두 김영순  
 왕성환 강순배 김순복 김용진 박옥식 박병선 안정숙 김정길 최숙화  
 오진훈 노순옥 홍순구 안홍숙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재흥 김애경 박영균 최호정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윤석철 장혜숙 김철수  
 (누계- 8,570,000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홍 순 덕	정 두 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영 한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재 문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김 명 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춘 려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최 속 화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김 금 순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최 종 원	이 명 희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임 수 연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최 영 선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교 회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방 극 숙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임 창 선	최 영 혜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교사대학** : 교회학교 10월 교사대학이 12시 5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3. **생명밥상** : 빈그릇운동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름다운 원로** : 하루 가을 여행을 떠납니다. 17일(화)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해 강화도에 다녀오겠습니다.
5. **목회계획세미나** :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모임(16일-18일)에 담임목사가 다녀오겠습니다.
6. **결혼** : 류건형/이주은 씨의 결혼식이 21일(토) 12시에 시청 옆에 있는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축하합니다.
7. **신앙실천** : 날마다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8. **동호회** :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 활동입니다.  
 남산 걷기 - 1시 30분에 교회 마당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테니스 - 2시 교회 마당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자전거 - 2시 교회 마당에서 모여 한강으로 라이딩 갑니다.  
 영화 - 1시 20분에 교육관에서 '아이스끼끼' 상영합니다.  
 사진 - 1시 20분에 모여 벽초지 수목원으로 출사 갑니다.  
 비즈공예 - 1시 20분에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건강 - 2시에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생태 - 1시 2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양재성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 헌화 : 방문성 장로 (故 방현복 장로 추도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